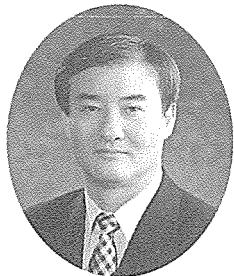


초대 과학기술부 장관에 姜昌熙의원 새 정부 개각단행, 과학기술부 차관엔 宋鈺煥씨 임명



▲ 姜昌熙 장관

金大中대통령은 3월3일 金鍾泌차민련명예총재를 국무총리서리에 임명하는 등 새 정부 17개 부처의 조각을

완료했다.

金대통령은 이날 조각에서 과학기술부장관에 姜昌熙의원(자민련, 대전 중구), 교육부장관에 李海瓚의원, 정보통신부장관에 裴洵勳대우프랑스지역본사사장, 건설교통부장관에 李廷武의원 등을 임명했다.

초대 과학기술부 장관으로 임명된 姜昌熙장관(52세)은 대전교, 육사(25기)를 졸업하고 육군대학 교수, 국무총리 비서실장, 11·12·14·15대의원, 국회 통신과학기술위원장을 거쳐 자유민주연합 사무총장으로 재직해 왔다. 姜昌熙장관은 3월 3일 취임사를 통해 “의지를 갖고 열심히 노력해서 과학기술부가 명실공히 이 나라의 과학기술을 한단계 더 높여 나갔다는 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취임소감을 밝혔다.

또한 金大中대통령은 3월 8일 법무부를 제외한 16개 부의 차관과 국세청장 등 차관급 38명에 대한 인사

를 단행하고 초대 과학기술부 차관에 宋鈺煥원자력실장을 임명했다.

신임 宋鈺煥 차관(53세)은 경기도, 고려대 화공과를 졸업하고 과학기술처



▲ 宋鈺煥 차관

과학기술부 인사

▲ 기획관리실장 : 柳熙烈 국립중앙과학관장 ▲ 연구개발정책실장 : 姜光男 연구개발조정실장 ▲ 원자력실장 : 林載春 청와대 경제비서관 ▲ 국립중앙과학관장 : 李相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사무처장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사무처장 : 景鍾哲 기획관리실장

(이상 3월 14일자)

4월 「과학의 달」행사 다채롭게 준비, 21일에 기념식 개최, 진흥유공자 포상도

4월 「과학의 달」을 맞이하여 과학기술부, 과총, 과학문화재단 등 정부, 과학기술 관련 출연연구소, 민간단체 등은 다양한 기념행사를 펼친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오는 4월 21일 제31회 과학의 날을 맞이하여 기념식을 개최하고 우리나라 과학기술진흥 창달에 기여한 인사를 선정하여 과학상·기술상·기능상·진흥상 등 대한민국과학기술상 본상(대통령상·상금 1천만원)을 수여하고 과학기술 진흥유공자에 대한 훈·포상을 한다.

새 정부 들어 처음 맞이하는 금번 과학의 달 행사는 IMF시대에 걸맞게 검소하면서도 범국민적인 과학기술 문화행사로 치룬다는 방침아래

일반대중 및 청소년의 과학마인드를 제고하고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과학기술진흥사업을 개최할 예정이다.

주요행사로 과총·과학문화재단 등은 4월 한달동안 초·중등학생, 교사, 학부모 및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과학기술에 대한 흥미제고 및 과학의 생활화를 주제로 한 각종 과학강연회를 개최한다. 또한 초·중등 과학청소년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대덕연구단지, 출연연구소 초청·견학을 실시하고 기념복권 발행, 기상관서 및 천문대 개방 행사 등이 치뤄진다.

이밖에도 대한수학회 등 과총산하 과학기술 관련단체들도 각종 학술행사를 4월 한달동안 치를 계획이다.